

# KBS 한국방송

수 신: 박영숙 이사장님

발 신: 작가 유한숙 ( )

프로그램: KBS 라디오 국제방송 <뉴스매거진>

방송시간: 2003년 11월 7일(금) 오후 7:00-7:20

녹음시간: 2003년 11월 7일(금) 오후 2:35-45 (총 8-9분 정도)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국제방송 <뉴스 매거진>입니다.

<뉴스 매거진>은 10개국으로 나가는 국제방송이며,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국제방송 인터넷 주소 [rki.kbs.co.kr](http://rki.kbs.co.kr)로 들어오셔서

10개 언어 가운데 <Korean>을 클릭하신 다음,

'24hr On air'에서 'Program 1'을 다시 클릭하시면 참여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7시부터 20분간 방송되며, 해외로는 여러번 송출됩니다.

그리고 녹음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되며 인터뷰 시간은 10분 내외입니다.

다음은 박 이사장님께 드릴 전화 인터뷰 질문 문항입니다.

1. 어제 발족한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먼저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 여성 100인을 국회에 보내자, 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요...현재 여성 국회의원은 16분이

시죠? 여성 국회의원 100인이 되기까지는 너무 요원하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3. 우리나라 여성계에서 내로라하는 분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40여분 되죠?

그런데 지난 8월에 '총선여성연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이 단체도 여성정치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어떻게 다른지요?

4. 그럼, 혹시 '맑은 정치 여성네트워크'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아닌지요? 이사장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5. '맑은 정치 여성네트워크'...내년 총선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이신지

요?

6.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비전 50%  
현실 30%

내년 총선에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현재 여성 국회의원 16명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여성 100인 국회에



수신: 한국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님

발신: 매일신문 <미즈엔> 신민경 기자

제목: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관련 인터뷰 질문지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활동사 '맑은'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 운동인데, 지금 여성 의원이 16명으로 거의 10배 수준인데 인력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무엇보다 여성들이 후보를 직접 추천하겠다고 나선 것이 신선합니다. 선거기준에 대해 궁금증이 많을텐데요.(총선 출마할 여성 추천 리스트 기준) 제안서에는 개혁성, 전문성 갖은 편향은 여성이라고 있다면, '좋은 여성' '편향은 여성'이라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박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성의 시각에서 '결혼은 여성'이라고 할 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성 경제인 모델을 꼽는다면?

▶추천된 여성들을 국외로 보내기 위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종선연대와는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정보인지, 이 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이 사이버상에서 여성정치자금 모금을 하려고 하나?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미국의 에밀리러스트 등)

▶ 평민당 시절 부총재까지 지내셨는데, 이후 정치 상황은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 여성이 경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했으면 합니다. 여흥 부회장으로 경제에 입문하셨는데, 어떤 이오경숙 대표께서 우리당 준비위원장으로 입당했습니다. 여성운동가의 정치입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연락처:

●인터뷰 일시: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서울문화회관 커피숍

$$H_0 \rightarrow H_1 \text{ (주제)}$$

YAHOO! 뉴스 KOREA

뉴스 - 아후! - 드림

여성신문  
www.ywnews.co.kr

빠른 k

속보 TV뉴스 모든 경제 IT 정치 사회 세계 연예 문화 스포츠 지역 생활 특이점 한겨레뉴스 포커스

검색

매거진 &gt; 여성신문

10월24일 오후 4:37

## "여성 100인 국회로 보내자"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칭) 발족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할당제를 구체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성계 인사들이 모여 11월 6일 발족하는 (가칭)맑은 정치여성네트워크는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제출된 정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비례직 50%, 지역구 선출직 30%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비례직 46명 중 50%, 지역구 226명 중 30%가 여성에게 할당돼 총 91명의 여성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

여성계는 이 기회를 개성, 장신성, 현장성, 전문성을 갖춘 여성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 오래전부터 의견을 모아 왔다.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각분야에서 활동해온 자격있는 여성후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제안자로는 박영숙, 송보경, 윤후경, 이오경숙, 이준호, 이해경씨 등이 참여하고 있고 준비위원으로 조현옥, 남인순, 이옥경, 윤경숙, 조안리 등 100여명의 여성계 인사가 참여했다.

(가칭)맑은 정치여성네트워크는 이번 캠페인이 우선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2003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여성의 정치, 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등을 평가한 여성권한 척도가 70개 국가 중 63위로 최하위권, 국회의원 272명 중 여성이 16명으로 5.9%에 불과해 여성의 정치적 지위 역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2년 지방의회 선거,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성할당 도입을 시도했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한 상황.

광고

YAHOO! 재탕

지금  
클릭해봐!

신나는  
아후!채팅



이번이 본격적인 여성할당이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호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고질적인 한국의 부패정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정치인이 필요한 만큼 여성들이 나서서 맑은 정치의 새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또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평등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법사위에 묶여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여성의원들의 참여는 절실하다.

(가칭)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동의하고 가입비 3만원을 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여성후보추천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소모임에 속해 활동할 수 있다.

(가칭)맑은 정치 여성네트워크는 여성후보추천, 16대 국회의원 평가, 후원,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 압력, 지지세력 구축, 모금행사, 릴레이 여성선언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여성운동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후보를 거명하고 숫자를 거론하면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가칭)맑은 여성정치네트워크가 처음이다.

▶ 대출이 이렇게 간단하다니!! - 대출 상환후 5분내 대출금 환불도 가능!!  
 ▶ 나에게도 BMW의 향연이!! - 아후! 보험에서 BMW 5대를 쓴다!!  
 ▶ 영화, 애니메이션은 기본! TV, 골프, 게임, 미술, 성인까지!! - 아후! 프리미엄VOO  
 ▶ 누구나 쉬운대출 - 대출금 환불보 5분내 3000만원까지 카드 대납!!

이전뉴스: 세계여성학대회 2005년 서울로 열린다



속보 TV뉴스 포토 경제 IT 정치 사회 세계 연예 문화 스포츠 지역 생활 **여성** **황금의뉴스** 프리뷰

Copyright © 2003 Yahoo! Korea Corp.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2003 The Women's News. All rights reserved.  
 제 작 권 자(c)여성신문, 무단 전재-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KBS 한국방송

수 신: 박영숙 이사장 (한국여성재단)  
 발 신: [Redacted]  
 프로그램: KBS 1R 「생방송 오늘, 김영수입니다」 (FM 97.3 Mhz, 후 5:10-7:00)  
 진 행: 김영수 교수 (서강대 사회학과)  
 방송일시: 2003년 11월 4일 (화) 18:30 ~ 18:42 (약 13분)

## 오늘의 이슈 II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후보를 공개적으로 추천해서- 국회에 보내자는 운동이 전개됩니다.

오는 6일 발족하는 '맑은 정치 여성네트워크' 인데요,  
 여성 1백인 국회 보내기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맑은 정치 여성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한국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1. 먼저 6일 발족을 앞둔 맑은 정치 여성네트워크를 소개해 주시죠.

2. 앞으로 이 단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예정입니까?

3.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여성 후보 리스트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그동안 다양한 여성 정치인들이 있어왔는데,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걸니까?

• 권력은 권력투쟁이 아니라 권력투쟁의 결과 game으로 인한

• 권력은 힘이 많이 드는 (권력투쟁이 부족해서) 가장 큰 이해관계

- ① 92년대의 여성이었던  
 1. 1995년 50%  
 2. 2000 30%  
 3. 2002 20%  
 4. 2004 12%

이런 것들이  
 여성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 이명박이  
 2. 이명박이  
 3. 이명박이  
 4. 이명박이  
 5. 이명박이  
 6. 이명박이  
 7. 이명박이  
 8. 이명박이  
 9. 이명박이  
 10. 이명박이

5. 그럼 이번 여성후보 공개 추천의 기준, 무엇입니까?

개혁신당과 혁신당으로 전향한 여성 후보들 가운데서 여성 후보 공개 추천

6. 여성 후보 공개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124명의 제언을 증진시키고서 network에 (여성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을, 정책들을

7. 단지 후보 추천에 그치는 것인지,

당선을 위한 활동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선을 위한 활동, 정책과 관련해서, 당원들과 연대해서 Supporters 역할

8. 최근 신당을 비롯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성계 인사들의 정치입문에 대해, 순수성을 해친다

는 논란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단체의 순수성, 이 단점을 보완해서 여성단체적으 (남) 관련은 아니라고

9. 여성의 정치 참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까요..

여성이 정치문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당의 경우에는 지지가 높지 않은 지지가 있는데, 여성들을 정치개혁의 기여

10. 요즘 혼란한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있는 것은 물론-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과거처럼 좀 더 정책 개혁

홍익대미도정계하고 깨끗한 정치 구현하는데

박영숙 이사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다수진출을해서  
되도록해서 함

오는 6일 발족하는 맑은 정치 여성네트워크에 대하여,

한국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 (가칭) 맑은 정치여성네트워크

제안자 박경린 박영숙 송보경 윤후정 이송희 이예자 이오경숙 이춘호 이해경 정순진 최일숙

###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Radio Sympathy

6.18-31

무엇을 하기 위한 운동인가요?

#### 1.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유엔개발계획(UNDP)이 2003년 7월 8일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등을 평가한 여성권한척도(GEM)는 70개 국가 중 63위로 최하위권이고, 국회의원(272명) 중 여성은 16명으로 5.9%에 불과해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정치분야에서의 누적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995년부터 여성계에서는 가부장적 정치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여성할당제를 주장해왔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형식적이거나 2002년 지방의회 선거와 2000년 국회의원 선거시 비례대표 여성할당 도입을 시도했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할당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성, 시민단체에서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비례직 중 50%, 지역구 선출직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비례직 46명 중 50%가 여성에게 할당되고, 지역구 226명 중 30%가 여성에게 할당된다면 약 91명의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후보를 발굴하여 정당의 밑심공천이나 공천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중적인 여성후보 추천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로 출마하는 여성이 늘어나야 가능하고,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후보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정당에 추천하고 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운동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전개하고자 합니다.

#### 2. 위기의 부패정치를 여성이 바꾸자!

불법정치자금문제로 또다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선거만 끝나면 불거져 나오는 거액의 정치자금 문제는 국민에게 정치를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사회 개혁의 절실함이 정치권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맡겨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퇴출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지역주의 정당구조로

인해 참신한 인물이 정치권에 진출하기 어려웠고, 투명하지 못한 정치자금문제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 등장으로 양김 정치가 사라지고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정치상황에서 참신하고 깨끗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정치권에 진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불신적이고 지역연고주의적인 정치문화에 질식한 여성들이 정치의 뒤편에 있었지만 이제는 방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나라꼴을 망치는 남성에게만 정치를 맡겨둘 수 없으므로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부패하고 무능한 인물을 교체하고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개편하여 정치개혁을 진전시켜 맑은 정치의 새판을 우리 여성들이 나서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 3. 양성평등정책을 지체·후퇴시키는 국회의원을 교체하자!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은 일부 퇴행적이고 가부장적 의식에 가득찬 남성의원들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지체되고 있습니다. 반면 16대 국회에서 소수지만 여성의원들이 활약하여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여성의제를 주류화하려면 성인지적 관점이 분명한 여성들이 17대 국회에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각 분야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독려하고 지지하는 서포터즈 역할을 합니다.

###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동의하고 가입비 3만원만 낼 수 있는 지구인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위원으로 여성원로, 장애, 노동, 농민, 법조계, 의료계, 문화계, 언론계, 기업인, 청년, 여성단체, 지역 등을 끌고루 포괄할 예정이며, 회원이 되면 본 네트워크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조직은 운영위원회, 여성후보추천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3. 11월 6일(목) 오전 10시 준비위원회 회의를 갖고, 오전 11시에 발족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입니다.

최보영

## 무엇을 할 것인가요?

1. 여성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 여성후보 선정기준 마련, 여성후보 공개추천, 심사 및 선정, 여성후보 리스트 발표 및 각 정당에 전달
2.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홈페이지 운영 : WWW.WOMANPOWER2004.NET (제작중)
  - 내가 추천하는 여성후보
  - 여성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안
  -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한 제16대 국회의원평가
  - 후원하기
  - 맑은정치 회원게시판 등
3. 선정한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 요구 및 지지, 당선운동
  -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 압력(지역구 선출직, 비례직)
  - 지역구에 진출하는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세력 구축
4. 여성정치인의 긍정적인 이미지 창출,
  - 16대 의정 평가를 통해 여성정치인의 긍정적인 역할 부각
  - 여론 매체 및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기획 홍보
5. 여성정치자금 모금
  - 사이버 모금
  - 100원 내기 캠페인
  - 모금행사
6. 맑은정치, 성평등정치 토론, 워크숍 등
  - 여성이 정치를 하면 이렇게 바뀐다.
7. 17대 총선에 즈음한 분야별 릴레이 여성선언
8. 기타

박경련(광주YWCA사무총장),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송보경(서울여대 생활교육부 교수), 윤후정(전 여성특위 위원장), 이송희(신라대 사학과 교수), 이에자(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이오경숙(여성연합 상임대표), 이준호(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해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정순진(대전대 문예창작과 교수), 최일숙(변호사)이 제안합니다.

※ 일시연락처 :

(담당자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준비위원 명단

| 번호   | 이름   | 단체/직책 | oto(or H) | C.P. | email(fax) |
|------|------|-------|-----------|------|------------|
| 환영   |      |       |           |      |            |
| 1    | 박영숙  |       |           |      |            |
| 2    | 송보경  |       |           |      |            |
| 3    | 윤후정  |       |           |      |            |
| 여성단체 |      |       |           |      |            |
| 4    | 김남식  |       |           |      |            |
| 5    | 곽배희  |       |           |      |            |
| 6    | 김모임  |       |           |      |            |
| 7    | 김상희  |       |           |      |            |
| 8    | 김수자  |       |           |      |            |
| 9    | 김재옥  |       |           |      |            |
| 10   | 박은경  |       |           |      |            |
| 11   | 박혜란  |       |           |      |            |
| 12   | 손봉숙  |       |           |      |            |
| 13   | 신혜수  |       |           |      |            |
| 14   | 이김현숙 |       |           |      |            |
| 15   | 이춘호  |       |           |      |            |
|      | 서미영  |       |           |      |            |
| 16   | 이혜경  |       |           |      |            |
| 17   | 조현옥  |       |           |      |            |
| 18   | 지영선  |       |           |      |            |
| 19   | 함영희  |       |           |      |            |
| 20   | 한우섭  |       |           |      |            |
| 참여   |      |       |           |      |            |
| 21   | 이낙영  |       |           |      |            |
| 22   | 장향숙  |       |           |      |            |
| 노출   |      |       |           |      |            |
| 23   | 박태연  |       |           |      |            |
| 24   | 이철순  |       |           |      |            |
| 25   | 이종각  |       |           |      |            |
| 26   | 이향원  |       |           |      |            |
| 27   | 정감자  |       |           |      |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준비위원 명단

NO. 781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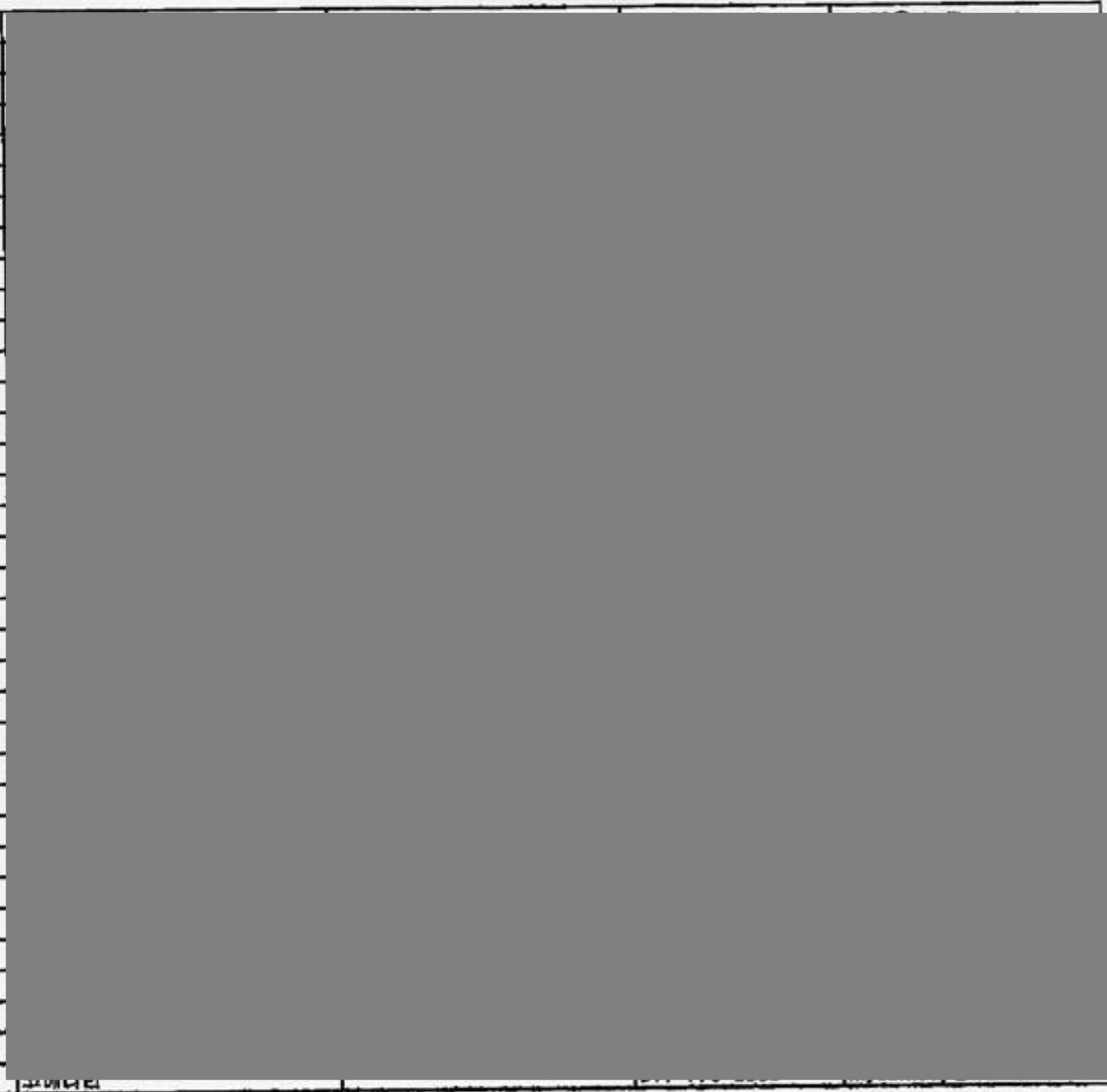
KOREA FUND FOR WOMEN

NOV. 3. 2003 12:53PM

|    |      |
|----|------|
| 28 | 정영숙  |
| 29 | 진영옥  |
| 30 | 최상림  |
| 31 | 김인호  |
| 32 | 윤금순  |
| 33 | 박경린  |
| 34 | 안이정선 |
| 35 | 권은수  |
| 36 | 박영미  |
| 37 | 하선규  |
| 38 | 김수옥  |
| 39 | 이경애  |
| 40 | 이경희  |
| 41 | 이정순  |
| 42 | 김공자  |
| 43 | 변지숙  |
| 44 | 정인경  |
| 45 | 이강실  |
| 46 | 송서애경 |
| 47 | 이은미  |
| 48 | 서영희  |
| 49 | 조성혜  |
| 50 | 권인숙  |
| 51 | 김경애  |
| 52 | 김민전  |
| 53 | 김선옥  |
| 54 | 나도선  |
| 55 | 민경희  |
| 56 | 박기영  |
| 57 | 박영자  |
| 58 | 심영희  |
| 59 | 안정남  |

많은정치여성네트워크  
준비위원 명단

|     |      |
|-----|------|
| 60  | 오한숙희 |
| 61  | 유지나  |
| 62  | 윤정숙  |
| 63  | 이승희  |
| 64  | 이영자  |
| 65  | 이은영  |
| 66  | 이정옥  |
| 67  | 이주향  |
| 68  | 장필화  |
| 69  | 정현백  |
| 70  | 조 은  |
| 71  | 조기숙  |
| 72  | 조순경  |
| 73  | 조주현  |
| 74  | 최연혜  |
| 법조계 |      |
| 75  | 김덕현  |
| 76  | 이명숙  |
| 77  | 이유정  |
| 78  | 전현희  |
| 79  | 최일숙  |
| 언론계 |      |
| 80  | 김효선  |
| 81  | 박옥희  |
| 82  | 서명숙  |
| 83  | 신숙희  |
| 84  | 신연숙  |
| 85  | 신연숙  |
| 86  | 이옥경  |
| 87  | 임정희  |
| 88  | 장영수  |
| 89  | 지영선  |
| 문화계 |      |
| 90  | 강혜숙  |
| 91  | 김미화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준비위원 명단

NO. 781 P. 7

NOV. 3. 2003 12:54PM KOREA FUND FOR WOMEN 025956397

|     |      |
|-----|------|
| 92  | 김소영  |
| 93  | 김민순  |
| 94  | 영필름  |
| 95  | 문소리  |
| 96  | 박영숙  |
| 97  | 박진숙  |
| 98  | 변영주  |
| 99  | 신경숙  |
| 100 | 윤석남  |
| 101 | 안혜경  |
| 102 | 이혜경  |
| 103 | 장미희  |
| 104 | 채윤희  |
| 105 | 최윤희  |
| 106 | 패티김  |
| 외로게 |      |
| 107 | 안영옥  |
| 108 | 이유영호 |
| 108 | 조수월  |
| 109 | 최보문  |
| 거원인 |      |
| 110 | 문선경  |
| 111 | 문애람  |
| 112 | 박은주  |
| 113 | 이조안  |
| 114 | 조안리  |
| 115 | 한성주  |
| 116 | 형난옥  |
| 행년  |      |
| 117 | 임수경  |
| 118 | 조어여울 |
| 119 |      |
| 종교계 |      |
| 120 | 이문숙  |
| 121 |      |

# 한국 기술경쟁력 세계 6위

작년보다 12단계 상승... 국가경쟁력은 18위  
세계경제포럼 발표... 핀란드 작년 이어 1위

한국의 기술력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2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31일 발표한 '2003~2004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작년도 25위에서 18위로 7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쟁력조사는 한 나라의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102개 국가를 상대로 이뤄졌다.

1위는 작년에 이어 핀란드가 차지했으며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지켰다. '하지만 강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에 대한 분야별 평가는 △거시경제 환경 23위(2002년 10위)

△공공기관 36위(· 32위) △기술력 6위(· 18위) 등이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력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의 품질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인터넷 사용인구 3위, 학교 내 인터넷 접속, 정부의 정보기술산업정책은 각각 4위로 평가됐다.

반면 △사법부의 독립성 29위 △일관성 있는 조세제도 47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42위 등은 종합순위보다 크게 뒤졌다.

WEF의 기업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23위로 평가됐다. 기업운영 및 전략은 19위를 차지했지만 국가적 기업 환경의 질은 25위로 낮았다.

기타분야에서는 민간부문의 여

## 2003년 국가경쟁력 순위

| 순위 | 국가경쟁력     | 기업경쟁력   |
|----|-----------|---------|
| 1  | 핀란드(1)    | 핀란드(2)  |
| 2  | 미국(2)     | 미국(1)   |
| 3  | 스웨덴(3)    | 스웨덴(6)  |
| 4  | 덴마크(4)    | 덴마크(8)  |
| 5  | 대만(6)     | 독일(4)   |
| 6  | 싱가포르(7)   | 영국(3)   |
| 7  | 스위스(5)    | 스위스(5)  |
| 8  | 아이슬란드(12) | 싱가포르(9) |
| 9  | 노르웨이(8)   | 네덜란드(7) |
| 10 | 호주(10)    | 프랑스(15) |
| 18 | 한국(25)    |         |
| 23 |           | 한국(23)  |

괄호 안은 2002년 순위.

자료: 세계경제포럼

성 취업(100위)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출산휴가 관계법령 97위 △직장여성의 모성보호법 95위 △남녀간 임금평등 90위 등이었다. 한국의 여성관련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허술하다는 의미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이충환 동아사이언스기자

cosmos@donga.com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칭)

## 준비위원회 회의자료

▲ 일시 및 장소 : 2003. 11. 6(목) 오전 10시 / 한국언론재단 프레스클럽

▲ 참석(예정) : 광배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수자 아키아 대표, 김효선 여성신문사 사장, 나도선 여성생명과학기술인포럼 대표, 문선경 논지당 대표, 박경린 광주 YWCA 사무총장,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옥희 이프 사장, 박은경 환경정의시민연대 대표, 박혜란 여성학자, 서미영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송서애경 포항여성회 회장, 신숙희 우먼타임즈 사장, 신혜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안이정선 대구여성회 회장, 윤정숙 여성학자, 이강실 전북여성연합 상임의장, 이경희 경남여성연합 공동대표,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옥경 미즈엔 대표, 이유정 민변 여성위원장, 이철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해경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전현희 변호사, 정영숙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최일숙 변호사, 한우섭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이상 30명)

### ▲ 보고

1. 준비위원 명단 : 10페이지 참조
2. 경과보고 : 4페이지 참조

### ▲ 안건

#### 1.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칭) 명칭 확정 의 건

- 맑은정치 : 탈권위적 정치, 성평등 정치, 깨끗한 정치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정치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온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정치의 새판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임

#### 2.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칭) 발족기자회견문 검토의 건

- (1) 사업계획(안) 심의 : 6페이지 참조
- (2)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발족선언문 검토 : 8페이지 참조
- (3) 기타

#### 3. 운영위원 선출의 건 : 11페이지 참조

# 많은정치여성네트워크

발·족·기·자·회·견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

일 시 2003년 11월 6일(목) 오전 11시

장 소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

문로광장  
각계  
연로계  
이로계  
유로계

주변으로  
나서

광안로

강가 - 제로가서  
광안로 - 단거리 - 제로가서  
이로 - 광안로

# 순서

사회 : 이유정 변호사

■ 퍼포먼스 :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 퍼포먼스

■ 인사말 :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축사 : 이미경 전 의원(열린우리당)  
김정숙 한나라당 여성위원장  
최영희 새천년민주당 여성위원장  
최현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이로계 - 제로가서  
단거리 - 제로가서  
광안로 - 제로가서  
이로계 - 제로가서  
유로계 - 제로가서  
30 + 30 = 200%  
광안로 - 제로가서  
단거리 - 제로가서

■ 경과보고 : 이해경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 사업계획 발표 :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 발족선언문 낭독 ~~최영희~~ ~~이로계~~ ~~유로계~~ ~~단거리~~ ~~광안로~~ ~~이로계~~

■ 질의 및 응답

## 경과보고

### ○ 10월 1일(수)

- 한국여성단체연합 '2004 여성정치참여 기획단' 회의를 통해 여성단체, 학계, 문화계, 언론계, 법조계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에게 2004년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기로 하다.

### ○ 10월 4일(토)

- 2004년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 추진을 위한 1차 간담회 진행
- 참석 :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옥경(미즈엔 대표), 정현백(여성연합 공동대표), 조현옥(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이해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한우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남인순(여성연합 사무총장)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칭)의 취지와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 발제 후, 17대 총선에서 좋은 여성후보 리스트를 작성해서 각 정당에 전달하고 그 후보들에 대한 지지, 당선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다.
- 여성후보 리스트는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괜찮은 여성들로 구성하고 진보적인 정당과 보수적인 정당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여성까지 구성하도록 하자.
- 모임의 준비위원은 지역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성이 주체가 되도록 한다.

### ○ 10월 11일(토)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칭) 추진을 위한 2차 간담회
- 참석 : 강남식(한국여성연구소 소장),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남인순(여성연합 사무총장), 이경숙(여성연합 상임대표), 이유정(민변 여성위원장), 이옥경(시사여성주간지 미즈엔 대표), 윤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조현옥(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정현백(여성연합 공동대표), 조은희(우먼타임즈 편집위원장), 조영숙(여성연합 정책실장)
- 간담회 내용
  - 명칭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로 하고 부제는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운동'으로 하기로 하다.
  - 준비위원회는 각계각층 여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단체 대표 및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준비위원회에서는 회원 확대와 총회 준비, 운영위원 구성안을 마련하기로 하다.
  -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를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추천

-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로 하다.
- 재정은 회원 가입비 30,000원, 운영위원은 100,000원을 받아 충당하고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다.
-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여성후보 추천운동은 상업사이트(다음, 여자와닷컴 등)와 연계해서 하기로 하다. 또 언론매체와 연계해서 여성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한 기획을 하기로 하다.
- 네트워크 간사는 별도로 두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여성연합에서 담당하기로 하다.

○ 10월 13일 ~ 11월 5일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제안자가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경린(광주YWCA사무총장),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윤후정(전 여성특위 위원장), 이송희(신라대 사학과 교수), 이춘호(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해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정순진(대전대 문예창작과 교수),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일숙(변호사)로 확정되다.
- 제안자 명의로 각계 각층의 여성들에게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준비위원으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참가 의사를 확인하다. nn

## 사업계획

### ① 여성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후보 추천활동

- 20인 내외로 여성후보 추천위원 구성 : 여성원로, 시민사회 남성지도자, 법조계, 언론계, 학계, 장애, 노동, 농민, 지역 등에서 골고루 참여
- 추천위원의 역할
  - 여성후보 선정기준 마련 : 각 분야에서 7년 이상 여성을 위한 활동실적 유무, 민주화와 사회개혁·정치개혁에 대한 평소의 소신, 도덕성(부패경력이 없어야 함), 분야별 전문성 정도, 평등과 인권 과제에 대한 인식정도
  - 여성후보 공개추천 : 단체 또는 개인도 추천할 수 있음(온라인에서도 가능)
  - 심사 및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여러 경로로 진실성 검증
  - 여성후보 리스트 발표 및 각 정당에 전달
- 추진 일정
  - 11월 10일 ~ 11월 21일 : 여성후보 공개 추천
  - 11월 24일 ~ 11월 28일 : 후보 심사 및 검증
  - 12월 1일 ~ 12월 5일 : 선정된 여성후보 명단 발표 및 각 정당에 전달

### ②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 요구 및 지지, 당선운동

- 각 정당에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 요구(지역구 선출직, 비례직)
- 지역구에 진출하는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네트워크 구축 : 단체, 개인 모두 포함

### ③ 홍보활동

- 여성정치인의 긍정적인 역할 부각
- 여론 매체 및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기획 홍보

### ④ 회원모집 및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모금

- 회원자격 :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동의하고 가입비 3만원만 낼 수 있는 지구인이면 누구나! 정당 등 정치관련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모금 : 사이버 모금, 우리 지역 여성후보를 위한 '1만원' 기부 캠페인, 모금이벤트 등

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홈페이지 운영 : [www.womanpower2004.net](http://www.womanpower2004.net)

- 내가 추천하는 여성후보
- 여성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안
-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한 제16대 국회의원평가
- 후원하기
- 맑은정치 회원게시판 등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활동소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회원게시판](#) | [여성정치자료실](#)

여성 100인 국회 보내기

낯은 정치, 여자들이 활~바꾸자!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소개

- 목적
- 조직 구성
- 활동 계획
- 활동 선언문

정치를 말려하는 다섯가지 방법

국회의원 꼼꼼히 보기  
-16대 국회의원 평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여성정책

활동소식

대통령이 재선임을 받았다는 조유의 사태가 발생한 한 시국에서 정치 부패와 정경유착의 폐해를 일소하고, 정치개혁을 강도높게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드높다. 2000년 낙선낙선운동 이후 4년 만에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을 위해 다시 모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 275개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정치개혁연대)'를 구성하고 10월 14일 오후1시 서울 안국동 골스카우트 회관에서 '정치개혁 촉구 전국대회'를 열었다.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발족  
 > 3번째 테스트 활동 소식입니다.  
 > (2번째)기사글 테스트입니다.

여성후보 추천하기

### "2004년 총선, 여성 100인을 국회로 보내자!"

위기의 부패정치를 여성이 바꿉시다!

정당개혁에 매진

불법 대선자금의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환멸과 무관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수십년동안 구조적인 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남성중심의 정치문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주의, 권위주의, 물신주의, 연고주의는 남성이 중심이 된 우리 정치,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제 정치의 새판을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나설 때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남성에게만 정치를 맡겨둘 수 없습니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부패하고 무능한 인물을 교체하고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개편하여 정치개혁을 진전시키고 맑은 정치의 새판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상대적으로 각종 연고와 이권관계에서 자유로운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전문성과 개혁성, 합리성을 갖춘 여성들이 정치에 대거 참여한다면 지역정치, 연고정치, 돈정치, 권위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5.9%, 너무 적습니다. 여성 100인을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2003년 7월 8일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등을 평가한 여성권한척도(GEM)는 70개 국가 중 63위로 최하위권이고, 국회의원(272명) 중 여성은 16명으로 5.9%에 불과해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여성계에서는 정치 분야에서의 누적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995년부터 여성할당제를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할당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에서 비례대표 중 50% 여성할당에 합의하고 있으며, 여성·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 비례직 중 50%, 지역구 선출직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정당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약 91명의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여성정치세력화의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우리 여성들은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성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당의 밑실공천이나 공천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중적인 여성후보 추천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로 출마하는 여성이 늘어나야 가능하고,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은 힘을 모아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후보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정당에 추

천하고 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운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개하고자 합니다.

**여성후보 추천운동으로 후보 선정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시할 것*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능력있는 여성들을 발굴하여 각 정당에 추천하는 운동을 통해 '능력있는 여성이 없다'며 여성후보 공천을 기피해 온 정당에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여성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각 분야에서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을 위해 오랜 기간 일해 온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정치분야에서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여성후보추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여성, 각 분야에서 비례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개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국민 속에서 여성후보를 찾고, 시민적·여성주의적 검증을 거쳐 작성된 여성후보명단을 각 정당에 추천할 것입니다. 여성후보 추천운동은 각종 선거에서 후보 선정과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며, 돈있는 여성이 아니라 능력있는 여성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창립을 통해 한국 정치의 새판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진정으로 바라며, 각 정당에 정치자금법 개정, 여성할당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더 이상 늦추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3년 11월 6일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준비위원회

## 운영위원 및 준비위원 명단

### ■ 준비위원 명단

| 번호           | 성명   | 소속단체/직책           |
|--------------|------|-------------------|
| <b>원로</b>    |      |                   |
| 1            | 박영숙  |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 2            | 윤후정  | 전 여성특위 위원장        |
| <b>여성단체</b>  |      |                   |
| 3            | 강남식  |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
| 4            | 곽배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 5            | 김상희  |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 6            | 김수자  | 아키아 대표            |
| 7            | 김재옥  | 소비자를위한시민의모임 회장    |
| 8            | 박은경  | 환경정의시민연대 대표       |
| 9            | 신혜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
| 10           | 이김현숙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 11           | 이준호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
| 12           | 서미영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
| 13           | 정현백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 14           | 조현옥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
| 15           | 지영선  | 21세기여성포럼 공동대표     |
| 16           | 한명희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 17           | 한우섭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
| <b>노동/장애</b> |      |                   |
| 18           | 이철순  |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대표      |
| 19           | 정강자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 20           | 정영숙  |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
| 21           | 최상림  |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 22           | 이낙영  | 시각장애여성성회 회장       |
| 23           | 장향숙  |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 <b>지역</b>    |      |                   |
| 24           | 박경린  | 광주 YWCA 사무총장      |
| 25           | 안이정선 | 대구여성회 회장          |
| 26           | 권은수  | 경기여성연합 공동대표       |
| 27           | 박영미  | 부산여성연합 공동대표       |
| 28           | 김수옥  | 부산여성정책연구소 이사장     |
| 29           | 이정애  | 부산여성유권자연맹 회장      |
| 30           | 이경희  | 경남여성연합 공동대표       |
| 31           | 이정순  | 대전여민회 전 회장        |
| 32           | 김공자  | 대전YWCA 사무총장       |
| 33           | 정인경  | 광주전남여성연합 공동대표     |
| 34           | 이강실  | 전북여성연합 상임의장       |
| 35           | 송서애경 | 포항여성회 회장          |
| 36           | 이은미  | 울산여성회 공동대표        |
| 37           | 서영희  | 원주여성민우회 대표        |
| 38           | 조성혜  | 부평자활후전기관 소장       |

| 번호                 | 성명   | 소속단체/직책          |
|--------------------|------|------------------|
| <b>학계</b>          |      |                  |
| 39                 | 강인순  |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
| 40                 | 공미혜  | 신라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
| 41                 | 김민전  | 경희대 정치학 교수       |
| 42                 | 김선옥  | 이화여대 교수          |
| 43                 | 나도선  | 여성생명과학기술인포럼 대표   |
| 44                 | 민경희  |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
| 45                 | 박기영  | 순천대 교수           |
| 46                 | 박혜란  | 여성학자             |
| 47                 | 심영희  |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
| 48                 | 안정남  | 서울여대 교수          |
| 49                 | 오한숙희 | 여성학자             |
| 50                 | 유지나  | 동국대 교수           |
| 51                 | 윤정숙  | 여성학자             |
| 52                 | 이상화  |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
| 53                 | 이송희  | 신라대 사학과 교수       |
| 54                 | 이은영  | 외국어대 법대 교수       |
| 55                 | 이정옥  | 대구가톨릭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
| 56                 | 장하진  |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
| 57                 | 조 은  |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
| 58                 | 조기숙  | 이대 국제학과 교수       |
| 59                 | 최연혜  | 철도대 교수           |
| <b>언론/법조계</b>      |      |                  |
| 60                 | 김효선  | 여성신문사 사장         |
| 61                 | 박옥희  | 페미니스트저널 IF 사장    |
| 62                 | 서명숙  | 시사저널 편집국장        |
| 63                 | 신숙희  | 우먼타임즈 사장         |
| 64                 | 신연숙  | 대한매일 논설위원        |
| 65                 | 이옥경  | 미즈엔 대표           |
| 66                 | 지영선  | 한겨레신문            |
| 67                 | 이유정  | 민변 여성위원장         |
| 68                 | 전현희  | 변호사              |
| 69                 | 최일숙  | 변호사              |
| <b>문화/의료/기업/기타</b> |      |                  |
| 70                 | 김인순  | (사)민족미술인협회 회장    |
| 71                 | 이혜경  |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
| 72                 | 이유명호 | 대한여한의사회          |
| 73                 | 문선경  | 논지당 대표           |
| 74                 | 문애란  | (주)웹캠 대표         |
| 75                 | 조안리  | ㈜스타커뮤니케이션 회장     |
| 76                 | 이문숙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
| 77                 | 윤수경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

■ 운영위원(안)

| 구분                         | 추천 위원(안)                                                                                                                              |
|----------------------------|---------------------------------------------------------------------------------------------------------------------------------------|
| 원로                         |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 여성단체/여성정치단체/<br>인권단체/소비자단체 |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br>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br>이춘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br>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br>한우섭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br>김재옥 소비자탈위험시민의모임 회장 <i>김재옥</i> |
| 노동/장애                      | 이철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br>장향숙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 지역                         | 광주 : 박경린 광주 YWCA 사무총장<br>대구 :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정보사회학과 교수<br>부산 : 이송희 신라대 사학과 교수                                                             |
| 학계                         | 오한숙회 여성학자<br>조기숙 이대 국제학과 교수<br>심영희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br>조 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
| 언론/법조계                     | 이옥경 미즈엔 대표<br>이유정 변호사                                                                                                                 |
| 문화/의료                      | 이혜경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br>이유명호 대한여한의사회                                                                                                       |